

주일설교 요약 : 신화수

죄와 죄의 증상

마가복음 7:14 - 23

우리가 어떤 병을 걸리게 될 때 그에 따른 증상이 있습니다. 병을 앓게 되는 게 먼저이고, 증상은 그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사람들은 병에 걸렸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이기에 죄의 행동을

세상의 관점에서는 죄를 저지르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저지르고 죄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먹어야 음식을 먹을 때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과 다르게 음식을 먹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지만, 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고싶다는 생각에서 그들은 이미 죄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는 세상을 향하던 발을 돌려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구원 얻음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가야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지켜주셨는지 기억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들도, 다른 지체들도 죄인이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